

고대 한중 문인 교류시 소고 (古代韓中文人交遊詩小考)

이충양*

目次

- I. 서론
- II. 唐나라 시기 한중 교류의 문헌자료
- III. 唐나라의 유학 정책과 한국 유학생
- IV. 문학교류 형성시기
- V. 시가 교류의 발전 시기
- VI. 교류시의 예술적 특징
- VII. 교류시 작품과 작가들의 역사적 의의
- VIII. 결론

I. 서론

한국과 중국은 오래 전 고대시기로부터 대단히 밀접한 교류를 시작하여 1992년 한중수교 이후 오늘날까지 학자, 문인 등 민간인들 사이에는 두터운 우의를 나누어오고 있다. 수 천 년을 지내오며 그 동안 적잖은 분쟁과 때론 전면전을 치른 적도 있지만 정치 경제 문화 교육 측면에서 꾸준히 관계개선과 민간차원의 우의를 쌓아왔던 점은 간과할 수 없다. 그리고 이러한 축적된 인적 교류와 우정의 물질적 정신적 교감이 21세기 오늘날 왕성한 한중교류 시대의 밑거름이 된 것이다. 중국은 우리나라 경제무역 상대국 중에서 가장 큰 물류거래량을 기록하는 나라가 되었고 서로가 수 만 명의 유학생을 교환하여 교육하고 있으며 남북관계에 있어 적극적인 외교력을 행사하는 나라가 되었

* 고려대 인문대 중국학부 교수 c yl@hsk.or.kr

다. 또한 한국의 많은 기업들이 중국에 진출하여 활발히 각 영역의 사업을 전개시키고 있으며 중국 역시 많은 경제인들이 한국에 투자를 하고 활동하고 있다. 이는 새로운 세기 새로운 동북아 협력관계를 위해 지속적으로 펼쳐나갈 양국의 공통적인 글로벌 공조전략이다.

양국이 서로 교감한 증거는 역사적인 문헌 자료에서 찾아 볼 수 있다.¹⁾ 이러한 문헌자료에 근거하여 우리나라 삼국시대부터 우리의 선조들은 자주 중국을 왕래하였음을 알 수 있다. 동시에 양국의 문인들은 서로 깊은 친분을 쌓았는데 고구려, 백제, 신라 시기의 많은 시인들이 우의를 다졌었다. 특히 신라는 당나라에 빈번히 사신과 유학생을 파견하였고 그 당시 교분을 쌓았던 당나라 인사들과 주고받은 많은 서신이 그 대표적인 증빙자료라고 볼 수 있다.

본고는 고대시기 특히 당나라 시기 한국과 중국 문인들의 인적 교류 상황에 초점을 맞추어 그 교유시(交遊詩)²⁾ 자료를 수집 및 정리하여 분석하여 보고자 한다. 이러한 자료는 지금 활발한 한중교류의 최초 문헌적 증거자료 역할을 할 것이고 또한 상호문화 교류의 역사적 발굴 가치가 있을 것이다.

II. 唐나라 시기 한중 교류의 문헌자료

한국과 중국은 산수가 서로 비슷하며 육지와 바다로 연결되어 있어, 서로 왕래의 역사를 오랜 기간 끊임없이 이어왔다. 唐왕조의 건립³⁾에 따라 중국의 봉건사회는 전성기에 들어갔는데, 당시 경제가 번영했고 그에 따라 국력이 강

1) 고대시기 한국과 중국의 문인들이 주고받은 交遊詩 시선집에 대한 문헌자료에 대하여 이충양 (2010), 《古代韓·中交遊詩》, 고려대학교출판부, <책머리에> 6쪽 참조.

2) 벗과 서로 사귀며 주고받는 시.

3) 唐나라는 618년 이연(李淵)이 건국하여 907년 애제(哀帝) 때 후량(後梁) 주전충(朱全忠)에게 멸망하기까지 290년간 20대의 황제에 의하여 통치되었다. 중국의 통일제국(統一帝國)으로는 한(漢)나라에 이어 제2의 최성기(最盛期)를 이루어, 당에서 발달한 문물(文物) 및 정비된 제도는 한국을 비롯하여 동(東)아시아 여러 나라에 많은 영향을 끼쳐 그 주변 민족이 정치·문화적으로 성장하는 데 크게 기여하였다.

성해졌으며 학문을 중시하였고 유교를 숭상하였다. 또한 당 왕조는 개방적이고 진취적인 자세로 전 세계를 향하여 문호를 개방하였다.

영국의 역사학자 H. G Wells는 《世界史綱》라는 명저에서 “唐나라 초년에 중국은 예의바르고 문화가 번영하여 명성이 멀리까지 퍼졌다. 당시 중국에서 나타난 이런 번영과 행복한 모습은 같은 시대에 있는 다른 나라들보다 앞장섰다”⁴⁾라고 표현했다. 한편 한반도의 동남쪽에 위치한 新羅 또한 문화와 교육 측면에서 발전한 나라라고 인식하였다. 당 현종이 天寶15년에 사신을 통해 신라왕에게 전해주는 十韻 시에 “의관을 잘 갖추고 예절을 받들 줄 알며, 충성과 신의를 알고 유학을 숭상한다. 정성을 다 함에 하늘이 알고 현명함에 그 덕이 외롭지 않다”라며 新羅를 표현하면서 “신라는 군자의 나라라고 부를 수 있고 글과 기록을 아니 중화와 다름없다”라고 했다.⁵⁾

이 시기에 동방문명국인 중국과 신라는 서로 문화, 교육, 예술과 종교에 대해 새로운 역사적 교류의 단계에 들어섰다. 당나라 때의 중국은 매우 개방적인 시기였는데 “밝은 왕이 신의와 덕을 베풀어, 주변 이민족들을 손님으로 만드니 사해가 모두 한 가족이다.”라는 외교 철학과 정책으로서 모든 나라들을 대했다. 이에 인접국가나 먼 나라로 부터 관료, 학자, 예술가, 승려 및 행상들이 줄지어 찾아 갔다. 뿐만 아니라 외국 국왕의 요구들을 받아주고 그들을 위해 인재를 배양하기도 했다.

Ⅲ. 唐나라의 유학 정책과 한국 유학생

당나라 초기에서부터 시작하여 해마다 수많은 외국 유학생과 연구를 목적으로 한 승려들이 중국에 갔다. 그 중에는 한반도와 일본에서 온 숫자가 많았

4) H. G. Wells 赫. 喬. 韋爾斯 (1982), 《世界史綱-生物和人類의 簡明史》, 인민출판사 679쪽 참조.

5) 《舊唐書》199권 <新羅傳>참조.

으며 학습과 연구영역도 광범위하였다. 당나라는 먼 곳에서 온 유학생들을 위해 학교를 설립하고 경제적으로나 식량 면에서 지원하고 좋은 학습 환경과 생활 처우를 제공하였다.

“마침 천하 유생들을 대거 모집한 시기인데..... 사방에서 온 학생들이 천 명이 넘었다. 얼마 안 있어 토번, 고창, 고구려, 신라 등 나라의 귀족들이 자기 자식을 입학시키기 위해 청탁을 해왔다. 그리하여 국학에서 공부하는 학생이 수만 명이 되었다.”⁶⁾ “貞觀 5년 이후에 唐太宗이 여러 번에 걸쳐 국학에 왕립하였으며, 이에 학생 기숙사를 천 이백 칸으로 증축하였으며..... 고구려, 백제, 신라, 고창, 토번등 각 나라의 국왕들이 자기 자식을 입학시키기 위해 요청했다. 그리하여 국학에 다니는 학생 수는 팔천여명이 되어 명성이 천하에 떨쳐졌다.”라고 전한다.⁷⁾

당나라 시대에 한반도에서 온 유학생을 총 4 가지의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 첫 번째는 나라가 파견하는 국비유학생이었다. 두 번째는 자비유학생이었다. 세 번째는 숙위생 즉 왕실 구성원 혹은 귀족자제 유학생이었다. 네 번째는 학문을 연구하는 승려와 중국에 와서 불교 또는 도교를 연수하는 학자들이었다. 이 사람들은 중국에 연수하는 동안에 대부분 당나라 정부가 설립한 외교 사무를 주관하는 부서인 ‘鴻臚寺’에서 경제적 도움을 받을 수 있었다.

그래서 당시 한국의 많은 유학생들이 기꺼이 중국유학을 떠났다. 어떤 사람들은 여러 차례 중국에 다녀가거나 중국의 독특한 정치에 빠져 돌아가는 것을 잊고 아예 중국에서 여생을 보내기도 하였다. 예를 들어 신라 태종의 아들인 金仁問은 당나라에 일곱 차례나 왕래하며 거기서 22년을 보냈다. “그는 유교서적을 많이 읽었고, 노자와 장자의 사상 및 도교와 불교에 대한 것도 많이 알게 되고 예서, 활쏘기와 말타기, 향약등 기예도 잘 하였다.”⁸⁾

고승 慧超⁹⁾가 열여섯 살 때에 당나라에 가서 여든 셋의 나이에 우타이 산

6) 吳兢 《貞觀政要》참조.

7) 王溥 《唐會要》三十五編 참조.

8) 金富軾 《三國史記》참조.

9) 혜초(慧超, 704~787)는 신라의 승려로서 밀교를 연구하였고, 인도여행기인 [왕오천

乾元菩提寺에서 원적하였는데 중국에서 60여 년간의 일생을 보낸 것이다. 신라왕자인 金喬覺스님¹⁰⁾은 당나라 永徽 4년에 24세에 바다를 건너가 중국 강서 池洲府 東靑陽縣 九華山에 도착하였다. 75년간에 매일 九華山 산꼭대기에서 앉아 수도하였고 99세 때인 개원 16년 7월30일 밤에 득도하였으며, ¹¹⁾ 마침내 중국 사대 불교명산 중의 하나인 九華山의 초대 불교 사조가 되었다.

한편, 당(唐)정부는 대국으로서의 포용정책으로 중국에 온 유학생들을 대상으로 “빈공과(賓貢科)”¹²⁾제도를 시행했다. 이 정책의 실시는 외국유학생들에게 굉장한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빈공과라는 것은 과거시험에 합격한 유학생을 포함한 외국인들에게 예외 없이 예의를 갖추어 접대하고, 그들에게 과거시험에 응시할 기회를 줄 뿐만 아니라 중국학자와 같이 합격한 급제자들에게 동일한 관직을 수여하는 것을 의미한다. 당나라 때 급제한 잘 알려진 신라인으로는 최치원, 최인곤, 최승우, 최언위, 김가기, 김이오 등이 있다.

삼국시대 이래로 한반도의 불교승도들은 잇따라 당에 가서 불법을 연구하였다. 통일신라가 된 후에, 당나라에 가서 불법을 찾고 불경을 연구·수도하는 승려의 수가 급증하여 거의 한반도 불교계에서 하나의 관습으로 자리 잡았다. 당나라에 가서 불법을 수도한 승려들은 귀국 후에 중요한 직책에 임용되기도 하였는데 이는 한반도의 승려들이 앞 다투어 중국에 가서 불법을 연구하는

축국전(往五天竺國傳)]을 남겼다. 719년 중국의 광주에서 인도 승려 금강지(金剛智)에게 배웠고, 723년경에 4년 정도 인도여행을 한 뒤, 733년에 장안의 천복사에 거주하였으며, 780년에는 오대산에서 거주하였다.

10) 김교각(金喬覺)은 신라의 고승으로서 왕자 출신으로 중국에 건너가 각지를 돌며 구도생활을 하다가 구화산에 화성사를 짓고 불법을 설교함으로써, 구화산이 불교의 성지가 되었다. 입적 후 시신이 썩지 않아 등신불이 되었는데, 아직도 구화산 지장보전에 그의 등신불이 봉안되어 있다.

11) 丁福保 《佛敎大辭典》 참조.

12) 賓貢科 : 당나라 때 처음 실시했으며 원나라 때 제과(制科)로 변경되었다. 빈공과 응시자를 빈공이라고 한다. 신라 말 당나라 유학생이 늘어나면서 빈공과에 합격하는 사람이 많아졌는데, 육두품 출신으로 최치원(崔致遠)·최승우(崔承祐)·최언위(崔彦擣) 등이 이에 해당한다. 신라에는 과거제도가 없었고 골품제도로 인해 신분제약을 많이 받은 육두품 출신들이 많이 응시하였다.

중요한 동기부여의 원인이 되었다. 그 중 많은 사람들은 유학을 마치고 귀국한 후에 한반도 불교계에 중요한 종교지도자가 되었고 각종 파를 새로 열어 시조가 되었다.

예를 들어 신라의 원광, 원각, 자장, 의상, 원효; 고구려의 의연 파야 혜란; 백제의 혜현 겸익 등이 있다. 또한 일부 유학하던 학자들은 장기간 당에 머무르며 불교경전을 번역하고 불교학의 진리를 탐구하거나 조용한 곳에 가서 수행하고 산전을 방랑하였다. 또 어떤 사람들은 중국에서 평생 불법을 널리 전하고 그곳에서 생을 마감하기도 하였다.

IV. 문학교류 형성시기

당대 시가는 줄곧 중국문학의 중요한 장르였다. 당 왕조는 시를 통해 선비를 선발하는 과거제도를 실시하였고 당 정부 또한 적극적으로 시가를 提倡하여 당대에 전례 없던 시가의 절정기에 이르게 되었다. 당대 300여 년 동안 왕과 지식인들, 많은 인사들은 모두 진취적으로 시가를 배우고 창작하였다. 그래서 당대사회에는 문학을 매개로 하여 친구를 맺고 시로 벗을 사귀는 등 교제활동을 할 수 있는 사회적 풍조가 만들어 졌다. 이 때문에 손님접대를 좋아하던 당대의 시인, 선비들과 한반도에서 온 유학생, 승려, 예인들이 만남과 교제를 진행하는 와중에 환영 및 환송을 위하여 주고받는 많은 시들을 남겼는데 그 중엔 걸작이 매우 많다. 이런 시문과 서화의 교류 과정에서 당나라 시가의 다양한 문화를 엿볼 수 있고, 아울러 이러한 풍조는 宋대까지 이어져 나갔다.

이러한 종류의 시 중에는 당시 한반도와 중국의 시인들이 직접 서로 환영하고 환송하며 주고받는 시도 있고, 당나라 시인이 한반도의 유학생 학자와 승려를 포함한 뛰어난 인재에게 지어 보낸 시편들도 있다. 또 당 관리가 한반도의 사절로 갈 때 지은 송별시도 있다. 또한 당에 간 한반도의 승려와 문인들도 진귀한 우호시가를 남겼다. 이런 시가에는 九華 지장조사 金喬覺이 이별을 아쉬워

하고 보답하는 칠언율시가 있고, 고승 慧超가 불교의 나라 천축(인도)을 힘들게 여행한 오언시가 있으며, 또 재능이 출중한 문학의 대가 崔致遠이 있다. 이들이 창작한 많은 시가는 그 내용이 우수하고 운율이 우아하며 자연과 조화를 이루었으며 이런 것들이 동방문화 보고의 찬란한 명작으로 남게 되었다.¹³⁾

시들이 넘쳐나던 당대의 ‘시의 숲(詩林)’에서, 이러한 종류의 시가는 한반도와 중국 두 지역의 민간시가에도 영향을 미쳤다. 비록 그 수가 많지는 않지만 그 당시 사람들의 일상 속에 밀착되어 있고, 소박하고 솔직하며, 참신하고 아름다워 독자적으로 한 파를 형성하였다. 이렇게 하여 고대 한중 문인 문학 교류는 7세기 초에 이르러 여러 측면에서 새로운 시기로 접어들었다. 이러한 전례 없는 문학적 성황은 고스란히 문학작품들 속에 묻어나왔다. 당나라 시기 한반도와 중국의 우호시가는 이러한 관련 내용을 집중적으로 반영하였다. 이 시기 독특하고 특별한 작품들은 한반도와 중국 민중 간에 우정 어린 감동적인 악장을 창작했을 뿐만 아니라 한반도와 중국대륙의 우의의 생생한 기록을 남겼으며 영원한 역사적 우호시가 되었다.

문학은 작가의 진실된 감정이 녹아야만 비로소 생명력을 얻게 되고 예술적인 면모를 만들어 낼 수 있다. 한반도와 중국 간의 우호관계를 반영한 이 시들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솔직한 감정을 들어내고 그들의 일상을 소재로 삼아 시 속에서 숨김없이 살아가는 일상과 느낌을 묘사했다는 점이다. 거의 모든 시마다 진솔한 감정이 이입되어 사람들을 감동시켰다.

V. 시가 교류의 발전 시기

서기 650년, 당 고종 영휘 3년 신라의 眞德女王은 《太平詩》를 지어 중신

13) 당시 한국과 중국의 친우들이 남긴 주옥같은 교류시의 목록과 그 구체적인 내용과 원문 그리고 주석 및 해설에 대하여 이충양(2010), 《古代韓·中交遊詩》, 고려대학교 출판부 참조.

金春秋 (훗날 태종왕)의 아들 法敏 (훗날 문무왕)을 당으로 보내어 당 고종에게 전하였다. 이 시는 매우 격조 높고 우아하며 진심어린 감정으로 당 (唐) 왕조의 통일대업과 태평성대, 왕성하게 발전한 사회정치 국면을 예찬하였다. 진덕여왕의 시에 대해 당 고종 李治는 매우 맘에 들어 하고 크게 감동하여 진덕여왕이 붕어하였을 때 직접 그녀의 죽음을 애도하여 태상승 張文收를 사절로 보내어 조문케 하였다.

안록산의 난이 터졌을 때, 唐 玄宗은 일찍이 蜀 지방으로 피신을 갔다. 그 때 신라 경덕왕은 당 현종을 위로하기 위하여 전쟁의 위험을 무릅쓰고 촉 지방으로 사절을 보냈다. 당 현종은 이에 크게 감동하여 경덕왕에게 감사를 표하기 위해 직접 五言十韻 시를 지어 주었다. 그 시는 “푸르고 푸른 뜻 더욱 중히 하여 온갖 어려움에도 영원히 변치 마세나.”¹⁴⁾라고 양국의 두터운 우의를 표현했다.

<신라 왕께>
당 현종

사방에 해와 별 나누고
만백성은 조정에 머리 숙이네
은 천하의 옥백들
산 넘고 물 건너와 조공 바치니
과거엔 아득히 떨어졌던 신라도
세월 따라 부지런히 중국에 입조하누나
가없이 넓은 땅 끝 창망한 바다로 이어진 곳
세상에 예악명의의 나라로 일컬어지니
어찌 산천인들 다르랴만
사신이 가면 풍교를 전할 것이며
벼슬아치는 예를 받들 줄 알고
정성으로 신의 지켜 현명한 학자를 존송하니
어진 뜻 하늘이 굽어보시리라
현명하고 덕 있는 자 외롭지 않으리라

14) “益重青青志，風箱恒不渝”，唐玄宗 (685-762)의 <賜新羅王> 전문 및 해설에 대하여 이충양 (2010), 《古代韓·中交遊詩》, 21-25 쪽 참조.

깃발을 잡고 함께 진작하여 백성을 다스리고
 후히 베풀어 깊은 뜻 이러가야 하리
 푸르고 푸른 뜻 더욱 중히 하여
 온갖 어려움에도 영원히 변치 마세나.

이 시에는 당시 당황제의 자만심의 표현과 동시에 신라에 대한 믿음과 어떠한 상황에도 변치 않는 양국의 우의에 관한 칭송이 잘 드러나 있다.

김교각¹⁵⁾의 <送童子下山>과 <酬惠米詩>에서, 전자는 나이와 상관없이 벗이 된 우정과 그 아이와 이별할 때 차마 헤어지기 아쉬운 정을 묘사해 깊은 감명을 주었다. 후자는 작가가 끼니를 거르고 있을 때 썼는데 친구가 그 즉시 돕고자 달려와 굶주림을 면하게 한 내용을 그리고 있다.

<쌀 보내 준 은혜에 감사하며>
 김지장

금란을 버리고 납의를 입고서
 수행하다 바다를 건너 구화산에 이르렀네
 원래 황태자의 몸이었으나
 불도를 사모하다가 가용지를 만났네
 감히 문 두드려 인사를 나누지도 못했는데
 쌀을 보내주어 새벽에 밥을 지었네
 그리고 이제 황정밥을 먹게 되니
 배가 불러 전날의 배고픔을 잊어 버렸네¹⁶⁾

이 시에서 묘사하는 우정은 작가가 느낀 마음속으로 부터 우러나온 감동을 표현한 것으로, 시의 내용에 그리움이 절절하게 흐르고 있다. 이 시의 소박하고 순수하면서 맑고 유연한 풍격은 국적을 뛰어넘는 진실한 우정을 생생하게 드러낸다.

15) 김지장과 동일 인물.

16) 金地藏 <酬惠米詩>의 원문과 해설에 대하여 이충양 (2010), 《古代韓·中交遊詩》, 197-198 쪽 참조.

중국역대 문인은 모두 김교각 보살과 그가 고요히 앉아서 참선하였던 ‘聖山’을 존경하여, 동시대 대시인인 이백을 비롯하여 비관경, 고비움, 설봉, 냉연 등에게도 전해져 많은 영향을 주었다. 당나라 이후에도 김교각 보살의 명성을 사모하여 ‘江東宗師’의 성지를 방문하러가고, 김교각의 유적을 참배하는 다수의 문인이 있었다. 또 ‘개산불조’¹⁷⁾ 김교각을 찬미하고 추억하는 대량의 시구를 남기는 문인도 있었다. 그래서 김교각이 남긴 불교유적과 더불어 그가 시가와 심신을 수련하며 도를 깨달은 ‘九華聖地’와 같은 곳은 이후에 중국과 한반도의 길이 빛나는 우정의 상징이 되었다.

저명한 시인인 혜초스님은 북인도에서 예불을 드리던 중, 일찍이 한 중국인 승려가 불교의 땅 인도에서 힘들고 고생스러운 여정 끝에 객사하였다는 이야기를 듣고 자기도 모르게 슬픈 마음으로 붓을 들어 <故里燈無主 고향집의 등불이 주인을 잃었구나>라는 애도시를 써내려갔다.

<고향집의 등불이 주인을 잃었구나>
혜초

고향집의 등불이 주인을 잃었구나
객지에서 보배나무가 꺾이고 말았으니
영혼은 어디로 가고
옥 같은 모습은 재가 되었는가
생각할수록 애처로운 마음이 간절하고
그대가 소원 이루지 못함이 애답구나
뉘라서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을 알리오
떠가는 흰 구름만 부질없이 바라본다.¹⁸⁾

이 시는 깊은 골짜기의 샘물소리처럼 슬프고 애절하여서 지금까지 읽혀오면서 많은 사람들의 심금을 울리고 있다.

17) 开山佛祖: 새롭게 불교의 종파를 창시함.

18) 慧超의 <故里燈無主> 원문과 해설에 대하여 이충양 (2010), 《古代韓·中交遊詩》, 204-205 쪽 참조.

崔致遠¹⁹⁾은 중국에서 공부하며 지내던 기간, 즉 당나라 후기에 많은 저명한 시인, 관리들과 알고지내면서 깊은 우정을 맺었다. 문인 교류활동 중에 많은 시들을 지었는데, 참신하고 유창하며 순박하고 진솔한 그의 시는 기풍이 자연스럽고 풍격이 고요하였다. 그 중에는 타향살이 하는 나그네의 고독과 처량함을 쓴 많은 ‘思鄉詩’²⁰⁾도 있다. 이러한 고향에 대한 간절한 그리움은 시인의 애국주의 정신과 마음을 반영하기도 하였다. 다음은 당시 친분이 깊었던 친구를 배웅하며 남긴 시이다. 애뜻한 우정이 잘 나타나 있다.

<진사 오만(吳巒)을 강남으로 배웅하며>
최치원

그대를 알고부터 헤어지길 몇 번이런가
서로 헤어지고 만날 때마다 한은 깊었지
도처에서 크게 싸우니 난리도 많네
어느 세월에 다시 만나 시와 술을 나눌까
강 언덕길에 멀리 나무들 들쭉날쭉
찬 구름은 말 앞의 산봉우리에 스러지네
가는 길 아름다운 경치 시 지어 나누세
해강(嵇康)의 게으름은 배우지 말지어니²¹⁾

당나라 시대 문인들도 한반도 친구들을 위하여 많은 양의 송별시를 썼다. 이 시의 내용들은 대부분 이별이나 먼 길을 떠나는 이에 대한 석별의 정에 대한 위로를 말하고 있다.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축복을 간절히 원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동안 쌓아 온 깊은 정을 아쉬워하는 마음도 나타난다. 류신허, 항

19) 최치원(崔致遠, 857~?): 신라시대 학자. 유교·불교·도교에 이르기까지 깊은 이해를 지녔던 학자이자 뛰어난 문장가. 879년 황소(黃巢)의 난 때 고변(高駢)의 종사관(從事官)으로서 <토황소격문(討黃巢檄文)>을 초하여 문장가로서 이름을 떨쳤다. <난랑비서문(鸞郎碑序文)>은 화랑도(花郎道)를 말해주는 귀중한 자료가 된다.

20) 고향을 그리워하는 시.

21) <送吳進士巒歸江南> 원문과 해설에 대하여 이충양 (2010), 《古代韓·中交遊詩》, 249-250 쪽 참조.

사, 허로, 마대, 장고, 장효표, 두순학, 관류, 배설 등의 ‘친구를 보내며 쓴 시’는 비록 쓰인 시간과 장소가 완전히 같지는 않지만, 시에 표현된 아쉬움과 석별의 정은 모든 시가 분명한 감동을 지니고 있다. 친구가 재회의 기약도 없이 멀리 떠날 때 진실한 깊은 정에 헤어지기가 못내 서운하다고 표현한 점은 중국 시인들의 한반도 친구들에 대한 각별한 우정을 증거하고 있다.

〈해동으로 떠나는 설문학(薛文學)을 바다에서 보내며〉

류신히

어느 곳이런가, 돌아가는 먼 곳
그대를 동쪽으로 아득히 보내노라
천만리 드넓은 바다
밤낮 하나의 쪽배에 기대어
멀리 떨어진 나라 바라보면
어슴푸레한 하늘가에 수심이 일고
간혹 선경에 가까이 간 듯
꿈속에 노를 짓는 것 같기도 하리
아니면 고색창연한 산봉을 보는 듯
고독한 산 백리 길에 가을만 깊어가고
앞길은 아득하고 마음은 바쁘건만
배는 망설이며 떠나려 하지 않으니
동서로 갈라짐이 애석할 뿐인데
풍파도 삼가 황은이이라
봄은 꽃향기 띄워 멀리 보내고
그리움은 바닷물 따라 흘러서 가리
해 저물 무렵에 이별가를 부르며
언제나 텅 빈 그대의 집을 그려 보리라²²⁾

신라 통일 후 중국과 한반도 양국은 긴 기간 동안 평화로운 외교정책을 실행하여 정부와 민간의 상호왕래가 나날이 빈번해졌으며, 이제껏 한 번도 없던

22) 劉育虛 〈海上詩送薛文學歸海東〉 원문과 해설에 대하여 이충양 (2010), 《古代韓·中交遊詩》, 49-50 쪽 참조.

“梯航不絕 (물과 육지의 끊이지 않는 왕래)” “日以繼路 (밤낮을 가리지 않는 왕래)” 의 형국이 되었다. 문학은 사회 정치생활의 거울로 여겨졌던 중국의 전통문학관으로 볼 때, 당시 또한 예외는 아니어서 이 시기에 중국과 한반도의 외교가 많이 반영된 外交使節詩가 출현하였다. 예를 들어 전기, 장적, 이단, 고향, 두상 맹교, 류우석, 장교는 모두 훌륭한 최고의 작품을 남겼다. 외교 사절의 명을 받드는 것은 중대한 임무이자 당시 최고로 영광스러운 일이었다. 그러므로 매번 외교사절로 떠나는 사람이 있을 때, 축하하기 위해 오는 관리, 문사, 친한 친구가 매우 많았고, 어떤 이는 축복, 관심과 희망의 표현으로서 여행자의 기세를 높이는 시를 짓기도 하였다. “수백수의 시를 보내는 것은 모두 장인의 기이한 거문고 타는 소리와 비견된다.”²³⁾라는 것은 예전에도 들어보지 못한 매우 융숭한 배웅을 말한다.

한치연의 《海東繹史》는 당대의 시인과 고구려사신의 함께 한 聯句 (연이어 지은 시구)의 사례를 기술하고 있다. “《堯山堂外記》에서 말하길: ‘고구려 사신이 바다를 건너며 시를 남겼다 (즉, 모래섬이 아직 떠오르지 않았는데 떨어진 산과 구름이 이어지겠는가). 그때 가도 (당나라 시인)가 소인(梢人)을 위해 연이어 다음 구를 적었다. (즉, 노는 물결 밑의 달을 꿰뚫고, 배는 물 속의 하늘을 누른다.) 고구려 사신은 그 시를 오랫동안 찬탄하며 읊조리고, 다시는 시를 이야기하지 않았다.’”²⁴⁾

이 같은 聯句에 대한 미담은 중국 시인과 고구려 사신 사이의 문장과 서화에 대한 열정과 조예를 담고 있으며 시에서는 노래하고 서로 주고받는 장면을 생생히 기록하였다. 이처럼 마음을 합하여 서로를 이해하고 한 목소리로 호응하며 완벽하게 의기투합하는 것은 그들이 진정한 친구임을 증명하기에 충분했다.

23) “送行數百首 各以鏗奇工”

24) “<堯山堂外記>曰: ‘高麗使過海, 有詩(即:沙島浮還沒, 山云斷復連)。時賈島詐作為梢人, 聯下句(即:棹穿波底月 船壓水中天) 麗使嘉嘆久之 不復言詩。’”

VI. 교유시의 예술적 특징

이러한 당시 한중 문인들 사이의 교류 시가의 예술적 특징은 바로 자연경관을 탐미하였다는 점이다. 또한 작가의 감정과 묘사된 경치의 조화를 추구했으며, 묘사하는 모든 자연경물 안에 자신의 감정을 모두 주입하고자 했다. “구름과 안개가 뒤덮인 섬과 아득한 하늘의 경계가 미세한데 아주 먼 동쪽에서 돛이 날아든다.”(張籍 <送金少卿副使歸新羅>) 라는 구절은 다른 많은 시편에도 이와 비슷한 시구가 나타난다. 모두 눈앞의 경치를 묘사하거나 상상속의 경물을 묘사하기도 하는데 이것들 모두에 떠나는 신라 친구의 바닷길 안전에 대한 깊고 세심한 우려가 깃들여 있지 않은 것이 없다.

“해지는 변방 요새에 기러기가 높이 날고, 해질 무렵 연기 자욱한 물가의 나무는 저 멀리 흔들거린다. (최치원 <酬吳巒秀才惜別二絕句>)”. 이 시구에서는 ‘석양, 변방의 기러기, 저녁연기, 물가의 나무’ 등 지속되는 황량하며 쓸쓸하고도 처량하고 쓸쓸한 객관적인 모습과 무의식중에 나타나는 고향을 멀리 그리며 실의에 빠진 운치가 나타난다. 이는 바로 작자의 당시 중국 체류 시절 나그네의 수심과 고독하고 쓸쓸한 모습을 묘사한 것이다. 이런 경치 중에는 운치도 있지만 오히려 다른 여러 이국의 풍취가 풍부하게 내포되어서 곱씹어서 음미하게 한다.

시인들이 감정을 토로할 때, 여전히 자주 상상속의 날개를 펼치는데, 하늘로 오르거나 바다로 들어가거나 마음껏 말을 타고 달리기도 하고 아울러 극도로 과장하는 기법을 사용하여 그들이 표현하고자하는 정서를 도드라지게 강화하기도 한다. “웃 위의 햇빛은 진정 불과 같고, 섬 옆의 물고기 뼈는 배보다 크다” (貫休 <送新羅人及第歸>). “오비산의 연기를 피워 많은 옥돌을 찾고, 태양을 파도로 씻어 많은 금을 기울인다.” (劉禹錫 <送源中丞充新羅冊立使>) 라고 묘사하였다.

시인들은 또한 比喻를 능숙하게 활용해서 묘사하려고 하는 형상을 더욱 선명하고 감동적으로, 더욱 생동감 있고 자세하게 표현했다. “나풀거리며 춤추

는 긴소매는 마치 매가 오르는 듯하다.”(李白 <高句驪>) 여기서 매의 오르내리는 모습으로 한국 춤사위의 우아하고 아름다움을 비유하였다. 많은 시 중에는 “꽃잎”, “부평초(개구리밥)”, “떠있는 잔”(一葉, 一萍, 一浮杯)을 사용하여 일본으로 건너간 친구의 돌아오는 뜻을 묘사하였다. 이같이 형성화한 比喩는 시의 미학적 효과를 높였다.

唐代 중국과 한반도의 우호적인 시문학은 문학의 보고 중 이채로운 작품일 뿐만 아니라, 중국과 한반도의 역사 문명에, 더 나아가서는 동아시아와의 문화교류까지 역사적으로 간과할 수 없는 귀중한 자료를 남겼다.

VII. 교유시 작품과 작가들의 역사적 의의

한중 교류의 생생한 증거자료가 되는 교유시는 역사적으로 상당한 가치가 있으며 그 작가들의 행적 또한 길이 인구에 회자되고 있다.

예부터 지장보살 金喬覺의 가문에 관한 설은 다양하다. 宋贊寧의 《高僧傳》에서는 “지장은 신라 국왕의 가까운 일가 일 것 이다”²⁵⁾ 라고 기록되어 있으나 중국 당나라 費冠卿이 쓴 《九華山化城寺記》²⁶⁾ 에는 “승려 지장이 바로 신라의 ‘왕자’이다”²⁷⁾ 라고 기록 되어있다. 후세 문인들은 김교각이 누구인가에 대한 각기 다른 주장으로 의견이 분분하였다.²⁸⁾ 김교각은 자신의 시 《酬惠米詩²⁹⁾》에서 “금란을 버리고 납의를 입고서 수행하다 바다를 건너

25) “釋地藏, 新羅國王之支屬也.”

26) 중국 당나라 비경관(費冠卿)이 쓴 글, 지장보살의 행적이 기록되어 있으며, 입적 후 19년 뒤에 쓰인 당나라 비경관(費冠卿)의 저서가 가장 정확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비경관은 학문이 뛰어났으며, 구화산 소미봉에 은거한 것으로 나타나 가장 객관적으로 구화산과 김교각을 관찰한 사료로 평가되고 있다.

27) “僧地藏則新羅王子”

28) 지장이 신라 어느 왕의 왕자나 왕족인지가 분명하지 않다는 데에 의견이 분분하다는 의미이다.

29) 구화산에서 고행하던 김지장이 오용지에게 쌀을 시주받고서 은혜를 잊지 못한다는

구화산에 이르렀네 원래 황태자의 몸이었으나 불도를 사모하다가 가용지를 만났네”라고 자신이 신라의 왕자임을 스스로 밝혔다. 이는 그 당시 김교각은 신라 왕족임에도 불구하고 중국으로 건너가 신라 왕족 자제, 호화로운 생활과 명예, 공명과 관록등 모든 부귀영화를 버리고 구도의 삶을 살았다는 것을 증명한다. 唐一夔는 《金地藏塔》에서 “고국을 떠나 바다를 건너 고향을 떠나 부귀영화를 버리고, 고통과 무소유를 추구하며 구법의 길을 찾는다. 불법을 구하기 위해서 죽음도 마다하지 않는다”라고 묘사하였다. 이러한 문인들의 글을 통해 김교각의 신분을 역사적 인물로 증명할 수가 있다.

당나라에는 한문학의 조예가 깊은 신라의 고승들이 적지 않게 있었다. 그들은 중국경서에 정통할 뿐만 아니라 불경에도 능통하였다. 원광, 원측, 혜초, 자장, 의상, 김교각, 홍혜 등이 그들이다. 이 고승들은 학식이 깊고 넓은 뿐 아니라, 법도와 시에도 능하였다. 慧超의 五首五言詩는 그가 天竺³⁰⁾의 여러 곳을 다니며 보고 느낀 견문과 고된 여정 및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생동감 있게 기록 한 글이다. 이러한 글들은 혜초에 관한 연구나, 당나라에서 구법하던 한반도의 승려의 생애와 업적연구에 중요한 역사적 가치를 지니고 있다.

崔致遠의 시가는 오늘날까지 오랫동안 전해져 왔다. 이것의 중요한 의의는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 최치원의 일생, 사상, 작품의 연구를 위하여 최치원의 친인척에게 없어서는 안 될 역사적 자료를 남겼다. 둘째로, 한국(신라) 고대문학, 한문학, 한국과 중국의 문학의 비교, 연구하기 위한 중요한 역사적 가치를 지니고 있다. 셋째, 당나라 말기의 사회나 정치, 외교, 문화, 교육, 예술, 특히 당대 하층민의 생활 등을 연구하기 위한 귀중한 자료를 남겨 주었다.

최치원은 16여년을 당나라에서 보냈다. 초기에는 학문을 닦는데 힘썼으며, 그후 장원급제함에 이어 관직에 올랐으며, 황제는 그 공을 높이 사서 ‘紫魚袋³¹⁾’를 하사하였다. 최치원의 글과 시는 당 전체와 문학계를 뒤 흔들었다.

내용의 시.

30) 천축; 인도의 옛 이름.

31) 물고기 모양의 장식이 붙어있는 주머니. 공복(公服)의 띠에 매달아 관직의 귀천을 구분하였음.

고려시대 대시인 李奎報는 “최치원의 업적은 후세 사람들에게 큰 영향을 미쳤다. 그러하여 동방학자들은 그를 모범으로 삼았다”라고 하였고, 오늘날에도 많은 학자들은 최치원을 한국과 중국간 우호교류의 대표적 사신으로 여기고 있으며, 고대 현실주의 문학의 대표적 인물이라고 평가한다.

노래와 춤의 교류 또한 당나라 시기 중국과 한반도의 문화 교류 중 최고로 활기를 띠었던 분야이다. 당태종 즉위 직후, 당나라 조정은 ‘十部大型樂曲’을 만들었다. 그 중에는 고구려의 기예가 있었다. 그 당시 고구려 멸망후 長安³²⁾에서는 한반도 출신의 음악가나 무용가, 연주가 그리고 노래하는 예인들이 많았다. 李白의 《高句麗》 시에서는 고구려의 음악과 춤을 표현한 예술가들의 우수한 연기가 생동감 있게 묘사되고 있다.

<고구려>

이백

금화 꽃은 바람막이 절풍모
 멈춰 멎춰 배회하는 하얀 말
 넓은 옷소매 펄럭이는 춤사위
 마치 해동의 매가 날아오르는 듯³³⁾

이런 예를 통해, 그 당시 중국과 한국이 문화와 예술 방면까지 교류를 진행했음을 추정해 볼 수 있게 한다.

VIII. 결론

지금까지 고대 한국과 중국의 지인과 문인들 사이에 주고받았던 교류시

32) 당나라 수도, 현재의 西安.

33) 李白의 <高句麗> 전문과 해설에 대하여 원문과 해설에 대하여 이충양 (2010), 《古代韓·中交遊詩》, 29-30 쪽 참조.

(交遊詩)의 발아과정과 그 전개 양상 및 왕성했던 시기의 시와 그 특징 및 역사적 가치를 나열·고찰해 보았다. 이를 통하여 삼국시대 이래로 줄곧 한국과 중국의 문인·일반인들은 서로 왕래하고 상호 우정을 쌓아왔음을 그 문헌적 자료를 통하여 심층적으로 추적할 수 있었다.

특히 당나라는 나라가 융성해짐에 따라 학술과 상업을 장려하고 대외적으로 문호를 개방하여 유학생들을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지원했다. 그래서 그 당시 우리나라의 많은 학자 및 승려들이 유학을 갔었고 그 중 적잖은 유명 인사들이 상응하는 시대의 중국 친구들과 시문 서신을 교환하며 친분을 두텁게 하였다.

唐玄宗이 안록산의 난 때 피난을 위로한 신라왕에게 시를 지어 주었으며李白 또한 <高句麗>를 지어 당시 우리 문화를 묘사하였다. 우리나라에선 金喬覺, 慧超, 崔致遠 등을 필두로 중국의 친구들에게 절절한 우정시로 화답하였다.

인간사의 발전과정에서 서로 다른 국가, 서로 다른 민족의 문화의 전달은 기본적으로 서로 교감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이런 의미에서 시를 통하여 다방면의 문화를 소통한 점은 역사적으로 커다란 의의가 있다. 상호문화 교류를 통하여 장점을 취하고 단점을 보충하며 양 국가의 풍부한 민족문화를 보강할 수 있었다.

우리는 지금도 한중교류의 유구한 역사 속에서 끊임없이 그 길고 긴 우의를 지속해 오고 있다. 본 고찰을 통하여 고대 한중 문인들의 진솔한 교유시 이전 세계 문화 교류 역사상 유례가 없는 양국의 가교역할을 해왔음을 확인하였다. 특히 唐代 중국과 당시 한반도 문인간의 우호적인 交遊詩는 한중문화교류사에서 대단히 화려한 분수령의 증거이며 동아시아 문화의 보고로서 귀중한 문헌자료이기도 하다. 즉 중요한 외교사적 의의 및 학술적 자료의 가치가 있을 뿐만 아니라 오늘날 살벌한 글로벌 경쟁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한중의 진정한 우의는 사사로운 이해관계 없이 순수하고 진솔하게 시작했음을 알리는 증표이다.

본고에서는 중국과 한반도 사이에 발생하였던 불행하고 불쾌했던 과거의 여러 가지 역사적인 사실을 논의에서 제외하였다. 단지 한·중 문인간의 개인적 감정과 예술적 교감을 문헌자료를 통해 수집 분석하였다. 앞으로 그 면면히 흐르는 한중 교류의 문학적 그리고 문헌적 증거 자료³⁴⁾들이 더욱 체계적으로 발굴되길 기대한다.

34) 양국의 우호시는 아직 학술적 차원에서 발굴이 미비한 상태이다. 지속적으로 관련 시를 찾아 편집, 번역, 주석 작업을 함으로써 당시의 시대상과 지배 계층의 생활관 및 백성들의 희노애락 그리고 정치 외교적 관계를 규명하는 논거들을 얻을 수 있다.

參考文獻

- 李充陽 (2010), 《古代韓·中交遊詩》, 고려대학교출판부
- 황선재 (2006), 《李白 오칠언절구》, 문학과지성사
- H. G. Wells 赫. 喬. 韋爾斯 (1982), 《世界史綱-生物和人類的簡明史》, 인민출판사
- 河世寧 (1966), 《全唐詩逸》
- 陳貽炳 편, 《增訂註釋全唐詩》
- 《고운최치원선생문집》 (1982), 고운최치원선생문집중간위원회
- 《東國通鑑》 (1989), 경인문화사
- 《全唐詩》 (1986), 上海古籍出版社
- 《全唐文》 (1990), 上海古籍出版社
- 《詩淵》, 書目文獻出版社

〈Abstract〉

A Brief Review on the Friendship Poems Exchanged Between Ancient Writers in
China and Korea

Lee Choong Yang

In this study, the origin of friendship poems exchanged between ancient intellectuals and writers in Korea and China, and the historical aspects and the characteristics of the poems during their heyday, and their historical value were reviewed. In doing so, the fact that the ancestors in Korea and China had exchanged letters and contracted friendship with one another was traced in depth by investigating references.

Especially, being prosperous, the Tang Dynasty opened the door to foreigners and attracted and supported lots of foreign students. For that reason, many scholars and monks came to China in order to study overseas, and quite a few of famous figures contracted friendship with Chinese friends by exchanging poems between them.

Tang emperor, the King Xuan, wrote a poem on his own writing to the King of Silla who consoled the emperor when he took refuge during An Lüshan's rebellion, and Li Bai also wrote *Goguryeo* that described Korean culture. In Korea, the writers, led by Gyogak Kim, Hyecho, Chiwon Choi and more, replied to the Chinese friends with earnest friendship poems.

Key Words : friendship poems, China-Korea, Chiwon Choi, jjaoyou

투 고 일 : 2010. 9. 10. / 심 사 일 : 2010. 9. 20. ~ 2010. 10. 10. / 게재확정일 : 2010. 10. 15.